이달의 으뜸중기제품 레그모아 '뷰티레그 체형기'

"휜 다리 펴줘요"… 7년 개발한 헤드폰형 체형기

'다리 교정장치는 왜 전부 저런 모양일까.' 최성진 레그모아 대표는 7~8년 전 어머니가 다리 교정을 받는 것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밴드를 칭칭 감아 종아리나 허벅지를 묶는 게 영 불편해 보였다. 다른 유형의 제품이 있는지 알아봤지만 모두 비슷했다. 직장생활을 하던 최 대표에게 아버지는 "직접 만들어보라"고 한마디 했다. 최 대표는 곧장 사표를 던지고 그 길로 '청년창업가'로 나섰다.

◆어느 장소에서든 손쉽게 사용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에 선정된 레그모아의 '뷰티레그 체형기'는 최 대표가 7년여간 개발한 끝에 지난해 내놓은 제품이다. 다리를 모아 휜 다리를 바르게 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레그(다리)모아'로 지었다.

제품은 얼핏 보면 헤드폰처럼 생겼다. 머리 대신 다리에 차는 게 다른 점이다. 양쪽에 달린 고무패드를 다리 바깥 쪽에 밀착한 뒤 동그란 손잡이를 돌려 조여주면 다리가 일직선으로 펴진다. "하루 15분 이상 사용하면 나쁜 자세나 선천적인 문제로 휜 다리가 좋아진다"고 최 대표는 설명했다.

최성진 레그모아 대표가 휜 다리를 곧게 펴는 데 도움을 주는 뷰티레그 체형기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기존 밴드형 체형기 불편
"직접 만들겠다" 창업 도전
⋮
수출 노린 신개념 미용기기
中·日 등 22개국서 팔려

손잡이로 다리에 가해지는 압박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압박을 세게, 오랜 시간 하고 있으면 그만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제품을 풀 때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된다. 다리 교정 밴드보다 쉽게 착용하고 빠르게 벗을 수 있다.

◆중국·일본 등 22개국서 판매

제품을 개발하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다. 만들었다 부수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생산 직전까지 간 것만도 다섯 개나 된다. 다리 교정에 효과가 크더라도 사용하기 불편하면 팔리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헤드폰 모양은 최 대표가 고심 끝에 생각해 낸 것이다. '직관적이고 단순한 데다 크기도 작게 할 수 있는 최적의 디자인'이라고 판단했다. 다리 교정장치로 실용신안, 발명특허, 상표등록을 마쳤다.

판매 단계에 들어가자 어디에 속하는 제품인지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기존에 없던 신개념 제품이기 때문이다. 처음엔 의료기기 등록을 추진했다. 의료기기가 돼야 '교정' '치료' 같은 단어를 홍보할 때 쓸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는 수출이 어려운 게 문제였다. 수출하는 국가마다 의료기기 등록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데 이제 막 창업한 기업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의료기기가 아니라 미용기기로 판매하기로 했다. 국내 병원이나 의원 등에 직접 납품하지는 못하지만 더 큰 해외시장을 놓칠 수 없었다.

작년 9월 법인을 세워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서자 반응은 뜨거웠다. 출시 6개월 만에 80여개국에서 사용자들이 이 회사 영문 홈페이지에 접속해 물건을 주문했다. 22개국의 인터넷쇼핑몰에도 입점했다. 중국 알리바바, 일본 라쿠텐, 미국 아마존 등 세계 주요 인터넷쇼핑몰에도 들어갔다. 중국과 일본 TV홈쇼핑에서 방송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고속도로휴게소 다섯 곳과 부산역 중소기업제품 전용관에 입점하기로 하는 등 오프라인 판로를 넓히고 있다.

대구=안재광기자 ahnjk@hankyung.com

이병찬 흙사랑119 대표(가운데)가 루마니아 고객사에 신품종 고구마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제공

중소기업 해외진출, 민간네트워크와 함께 뛴다 〈2〉·끝

루마니아서 한국 고구마 판다

흙사랑119, 현지 맞게 개량
중기청·중진공, 판로 열어

농기구와 종묘 등을 판매하는 흙사랑119 이병찬 대표는 2013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2009년부터 루마니아 시장의 성장세에 주목해 문을 두드렸지만 빚만 늘어갔다.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사업에 지원한 것이 '반전의 계기'가 됐다. 현지 컨설팅업체인 오픈브리지가 판로 개척에 적극 나섰다. 도소매상은 물론 루마니아 농림과학원, 대학 연구소 등과 교류하며 2년간 약 15만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새로운 시장도 열렸다. 이 대표는 오픈브리지 소개로 만난 루마니아 농림과학원과 함께 1년에 걸쳐 한국 고구마를 현지에 맞게 개량했다. 현지 농민이 이 고구마를 재배하면 로열티를 받는다.

마찰용접기 제조업체인 유진테크도 해외민간네트워크 덕을 톡톡히 봤다. 일찌감치 미국 진출을 원했지만 현지 인프라가 없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작년 현지 업체인 LPR의 지원을 받았다. LPR은 기계·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업무를 한다. 유진테크는 LPR을 통해 장비를 구매한 적이 있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판촉에 나섰다.

셰일가스 채굴 장비를 만드는 패커스플러스가 관심을 보였다.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사후서비스(AS) 거점 확보와 샘플 제작이었다.

패커스플러스 인근에 있는 LPR 고객사 한 곳을 AS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샘플 제작은 패커스플러스가 먼저 발주하고, 품질이 기준 이하일 경우 유진테크가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김성윤 유진테크 대표는 "LPR과 패커스플러스의 유대관계가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거래 금액은 약 39만6000달러로, 오는 9월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내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국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현동기자 gray@hankyung.com

임신부 피 한방울로 태아 희귀병 예측

'듀센형 근이영양증' 진단법
서울대병원 연구팀 개발

국내 연구팀이 임신부 혈액검사만으로 뱃속 태아의 유전성 근육병을 미리 알아낼 수 있는 검사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서울대병원은 유전성 근육질환인 '듀센형 근이영양증' 환자의 가계에서 태아의 발병 여부를 예측하는 새로운 진단법을 개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는 서울대병원 임병찬(사진)·채종희 소아청소년과 교수팀, 박중신 산부인과 교수와 서정선·김종일 서울대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교수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논문은 국제학술지 '임상화학회지(Clinical Chemistry)' 6월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듀센형 근이영양증의 원인 유전자인 '디스트로핀'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방식으로 질환을 진단하는 데 성공했다.

듀센형 근이영양증은 근력이 약해지고, 20세가 넘으면 호흡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유전성 근육병은 긴 관을 임부 자궁에 삽입해야 해 검사에 대한 부담이 컸다.

채 교수는 "듀센형 근이영양증과 비슷한 유전양식을 보이는 다른 X염색체 열성 유전질환의 산전 진단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혁기자 rainbow@hankyung.com

유진기업 "여의도에 韓流 면세점 만들 것"

中企 시내면세점 따내면
舊 MBC 사옥에 매장
K뷰티·K팝 스튜디오 운영

서울 시내면세점 중소·중견기업 분야에 도전하는 유진기업은 사업권을 따내면 한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 면세점으로 운영하겠다고 7일 밝혔다. 면세점 사업장인 여의도 옛 MBC 사옥의 방송스튜디오, 공개홀 등 방송시설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먼저 한 층 높이가 16m에 이르는 기존 방송시설에 매장을 만들어 방송스튜디오를 거닐며 쇼핑하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매장에 스튜디오에서 사용되는 방송용 조명과 카메라를 설치한다. 또 드라마 스튜디오와 매장 사이에 투명외벽을 설치해 쇼핑하면서 촬영이 이뤄지는 제작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진그룹은 지난달 MBC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스튜디오에서 드라마 제작을 하고 일부를 관광객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K뷰티, K팝 스튜디오도 운영한다. K뷰티 스튜디오는 한국의 뷰티 노하우를 전하는 공간이다.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한국 브랜드 제품으로 메이크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상주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K팝 스튜디오에서는 전문 댄서가 한류 가수들의 춤과 노래를 가르쳐준다.

오영석 유진기업 전무는 "AOA FT아일랜드 등 아이돌그룹이 소속된 FNC엔터테인먼트와 상품개발 협약을 맺는 등 한류 콘텐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며 "유진만의 강점인 방송과 문화체험이라는 경쟁력으로 신개념 문화 면세점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분야에선 14개 업체가 경쟁 중이다. 관세청은 8일부터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울 지역에서 대기업 두 곳, 중견·중소기업 한 곳 등 세 곳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강영연기자 yykang@hankyung.com

아주산업, 아산 PHC파일 공장 준공

아주산업이 대구경 PHC파일 생산에 본격 나선다.

아주산업은 충남 아산사업소에서 공장 준공식을 열고 대구경 PHC파일 생산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경 PHC파일은 지반의 기초 구조를 보강하는 데 사용되는 지름 700~1000㎜의 고강도 파일이다.

이 제품은 구조물의 대형화 및 안전성 강화 등에 효과적이다. 매립지나 해안 인접지역, 플랜트산업 등에서 대형 구조물의 기초 공사를 하는 데 적합하다. 공사기간이 줄고 공사비도 15%가량 절감할 수 있다. 국내 대구경 PHC파일 시장은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김희경기자 hkkim@hankyung.com